

97 상반기 임단투의 특징과 과제

올해 임단투는 예년과 달리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때문에 투쟁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처럼 보였으며 성과도 뚜렷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의 투쟁결과를 보면 어려운 조건을 이겨낸 소중한 성과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자본측의 총체적인 선제공격 속에 출발한 임단투

한여름 내내 지각을 달구었던 무더위가 물러가면서 올해 임단투도 마무리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다. 아직 교섭과 투쟁의 결과가 종합되지 않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올해에도 많은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투쟁들이 전개되었다. 삼미특수강이나 한국타이어, 한국후포꾸, 덕부진흥, 동산의료원처럼 전근대적인 폭력적 탄압에 맞서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투

쟁이 전개되었는가 하면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과거보다 더 격렬한 투쟁을 전개한 노조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 매년 되풀이되었던 대대적인 공권력의 개입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마창지역 등에서 노조 간부나 활동가들이 연행 구속되고 많은 간부들이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다.

당초 올해 임단투는 예년과 달라진 조건을 안고 출발하였다. '달라진 조건'이란 지배권력의 직접적인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을 빌미

노동조합진영은 총파업의 위력을 되새길 사이도 없이 새로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투쟁수위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게다가 정치세력화와 대선 대응이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채 '97임단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로 한 권력과 자본측의 이태올르기 선제공세가 강화되었다는 점, 노동법이 바뀌었다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조건변화에 대해 노동운동진영은 지난 겨울 총파업의 위력을 입부전선에 연결시켜 임단투목표를 쟁취한다는 것,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무력화시키고 노동법개정투쟁의 불을 지펴낸다는 것, 사회개혁투쟁을 강화하여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도를 높여낸다는 것, 산별노조의 건설과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진술은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낮추는 대신 고용안정과 사회개혁요구의 비중을 높이고 교섭권 위입에 의한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확대 강화하여 투쟁의 집중력을 키워낸다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총파업참가자에 대한 부노동 무임금 적용, 손배청구, 개별적인 불이익조치와 징계, 코소 고발 등 사용자측의 보복이 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여기에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사태가 사용자측의 공세에 무게를 실어주었고 여론 매체를 이용한 경제위기관론이 더욱 기세를 부리면서 노동자들의 투지를 위축시켰다. 뒷날 산별연맹이 합법화됨으로써 임단투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였지만 아직 역량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교섭에 들어가자마자 사용자측으로부터 임금동결과 단체협약의 개악 그리고 임금이나 고용이나 선택을 강요하는 사용자측의 선제공격에 직면하였다. 이렇게 노동조합진영은 총파업의 위력을 되새길 사이도 없이 새로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투쟁수위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게다가 정치세력화와 대선 대응이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채 '97임단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임금동결정책의 무력화와 고용안정 정치의 확보

이와 같이 올해 임단투는 예년과 달리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때문에 투쟁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처럼 보였으며 성과도 뚜렷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의 투쟁결과를 보면 어려운 조건을 이겨낸 소중한 성과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임단투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요구조건에 관철에 두지만 더욱 중요한 것으로 조직력 및 투쟁력의 강화 확대, 투

쟁을 통한 정치적 자각의 고3333+양, 노동운동의 정치적 역량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임단투는 이런 목표에 어느 정도투쟁과 캠페인 등 전국조직차원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서산택시 3사의 공동파업, 부천의 경원세기 등 3개사의 공동투쟁 등은 지역차원의 공동연대투쟁이 약화되어온 추세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교섭에 있어서는 교섭권위임이 대부분 연맹의 핵심전술로 등장하였고 투쟁전술은 사업장별로 총파업, 부분파업, 시한부파업, 간부파업 등 전통적인 방식이 활용되었다. 또한 병원연맹의 문제사업장에 대한 집중타격 및 순회농성전술 등이 등장하였으며, 새 노동법에 따른 대량의 노동관계 지원자 선정전술과 조정전치주의에 근거한 노동위원회 활용방식 등이 새로이 채택되었다. 교섭권 위임전술은 급속, 자동차, 현충연, 병원, 건설, 공익, 대학 등 대부분의 연맹에서 조직 전체의 절반 정도가 교섭권을 위임함으로써 연맹 위상을 정립하고 힘을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노동관계지원은 급속연맹을 비롯한 많은 조직에서 대량의 인원을 동원하여 노동부의 억지해석을 끌어냄으로써 노동법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 또한 서울 지하철노조는 해고자문제, 조합비 압류, 손배청구 등 과거 사용자의 혹독한 탄압을 받아온데다 특수공익사업의 규정에 묶여 적극적인 투쟁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공략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서울대병원에서는 사용

자측이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써 노조측의 반발을 증폭시킨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다섯째 성과로는 정치적 자각과 정치역량의 강화문제와 관련하여 사회개혁투쟁과 정치세력화를 들 수 있다. 민주노총은 4대 임단협요구(공동교섭쟁취, 3차개입금지 무력화, 전임자축소저지와 임금감축 반대, 고용안정보상)와 사회개혁 13대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 가운데 사회개혁요구는 사용자측의 고용불안공세와 단협개악공세 그리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의 미형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국민생활 옹호의 성격을 분명히 각인시켰으며 일정한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단투 과정에서 나타난 사용자측의 단협개악공세는 지난번 노동법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으로 개악되었는가와 함께 노동법을 조속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이 뼈저리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재확인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임단투 과정에서도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촉박한 일청 속에서도 마침내 '국민승리2'를 발족시킨 것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7임단투의 문제점 - 전선의 분산과 집중력의 약화

이와 같이 97 임단투는 여러가지 어려

**임단투 과정에서 나타난 사용자측의 단협개악공세는 지난해 노동법이 얼마나 반노동지적으로
개악되었는가와 함께 노동법을 조속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이 뼈저리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움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 않은 문
제점을 드러냈다.

첫째, 교섭 및 투쟁시기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늦어졌다. 노동부통계에 의하면 7
월 29일 현재 타결사업장이 60.3%로 작
년 같은 기간의 72.9%보다 크게 낮아졌
으며 민주노총은 26.8%(7.16현재), 한국
노총은 40.6%(7.21현재)에 그치고 있다.
이는 총파업투쟁의 여파로 임단투 준비가
지연되었고 총파업에 의해 소진된 현장동
력을 추스르는데 많은 노력이 경주된데다
사용자측이 공세적으로 내놓은 단협개악
안을 철회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
던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일
부 산별연맹의 경우 합법성 생취 후 임단
투 돌입이라는 일정이 작용하기도 했으며
급격히 악화한 기업경영의 영향을 받아 눈
치보기에 급급한 측면도 가세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시기의 지연은 전체적인 투
쟁의 시기집중이나 통일투쟁을 흐트릴 수
있으며 임단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그
이후의 투쟁일정·예견대 노동법 개정투
쟁이나 대선예의 대응 등-을 촉박하게 함
으로써 시행착오를 남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된다.

둘째, 전반적으로 노동쟁의 건수가 감소
했고 그 강도도 훨씬 약해졌다. 노동쟁의
행위는 8월 1일 현재 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건 줄어들었으며 쟁의 참가자
수는 68,000명에서 4만명으로 감소하였
다. 또한 쟁의의 완강성을 나타내는 노동
손실일수는 작년의 경우 재작년보다 2배
이상 많아졌지만 금년 8월 현재는 220.8
일로 작년 같은 시기 666.5일의 1/3에 지
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수세
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투쟁보다
는 평화적인 교섭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화
적인 교섭이 경영악화를 의식한 나머지 기
업이 살아야 노조도 산다는 사용자측 논리
에 매몰된 결과로 나타난 경우도 적지 않
았으며 취약해진 현장조직력 때문에 불만
스러운 수준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
던 조직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국적인 투쟁의 쟁점사항이 부각
되지 않았다. 작년에는 노동시간 단축, 해
고자 복직, 작업중지권 등이 공동의 쟁점
사항으로 뚜렷하게 제기되었지만 금년엔
그렇지가 못하였다. 물론 금년에도 고
용안정문제가 대다수 노조에서 문제가 되
었고 단협개악안(병원노련, 현총련), 진임

자 축소(조폐공사 등 공공부문), 공동교섭 거부(금속연맹, 공익노련)와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민주금융, 사무노련), 자동차연맹의 구조조정문제 그리고 민주노총의 13대 사회개혁요구 등이 쟁점사항으로 제기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들 문제들의 대부분은 개별 사업장 또는 부문의 교섭쟁점으로 머물렀으며 전국적인 투쟁의 고리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여기에는 대다수 노조들이 현안의 과제로 삼았던 고용인정문제가 다양한 기업 내부 상황에 제약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 임단투의 선도사업장들이 일찌감치 투쟁의 깃발을 내린데다가 사용자측의 선제공격을 막아내는데 급급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동투쟁 통일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은 채 기업별로 분산된 투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임금인상수준이나 단협상 요구조건의 통일이나 집중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나 교섭이나 투쟁의 시기집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이것은 임단투 준비정도, 조직력의 차이와 함께 전국적 투쟁의 쟁점이 부각되지 않은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주요 전술로 채택했던 교섭권 위임이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통한 조직의 집중력 강화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단위노조의 교섭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흐른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투쟁의 중심에 서왔던 일부 선도적인 대기업 노조들에서 부교섭, 임금동결, 백지위임 등이 조기에 속출함으로써 공동 연대투쟁

의 가능성이 크게 감퇴되어버린 결과이기도 하다.

다섯째, 투쟁의 중심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쟁점사항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쟁의 중심노조를 설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까지 투쟁을 선도해왔던 조직들이 개별사업장의 문제해결에 몰두한 나머지 독자적으로 교섭을 포기하거나 피업 직진에 합의할 이음으로써 투쟁의 중심이 형성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투쟁의 중심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전조직적 차원에서의 시기 집중과 통일적 투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전반적으로 투쟁전선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중앙조직의 역량강화와 현장조직력의 복원이 핵심과제

임단투는 지난 날 운동이 축적해 온 조직적 역량을 반영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할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올해 임단투가 어렵사리 쟁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드러냈다면 그 원인은 내부 조직역량에서 찾아야 하고 이를 치유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여당초 올해 임단투는 새로운 조건의 대투와 조직내부의 역량에 비추어 '지키는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조건하에서 공격적인 투쟁은 웬만큼의 역량과 전술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키는 싸움의 경우에는 힘의

자본측의 신경영전략에 의해 현장조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올해처럼 고용불안을 무기로 한 자본측의 공격이 강해진 경우 현장조직력은 더욱 흐트러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집중을 기하기 위한 지도력의 확립과 치밀한 계획 및 전술이 중요한 변수로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로만 볼 때 올해 임단투는 투쟁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산만하게 전개되었다. 그것은 중앙지도력이 고립 분산된 투쟁을 특성으로 하는 기업별 조직체계의 타성을 제압하지 못하였으며 그만큼 기업별노조의 뿌리가 아직도 매우 완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산별노조 전술의 전단계로서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치밀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조직의 역량을 대폭적으로 확대 강화함과 아울러 과학적인 정세분석과 치밀한 전술선택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투쟁전선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각 사업장의 현장조직 동력이 취약해진 것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자본측의 신경영전략에 의해 현장조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올해처럼 고용불안을 무기로 한 자본측의 공격이 강해진 경우 현장조직력은 더욱 흐트러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임금보다 고용안정을 더 중시하는 노

동자들로서는 좋은 삶은 간에 노동조합의 통일적인 투쟁방침보다는 개별기업 사용자측의 논리에 더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올해 임단투는 현장조직력을 시급히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곧 각급 조직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일상활동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최대과제로 떠오른 정치세력화의 대선의 대응이 현장동력의 강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우선변제에 대한 현재의 워헌판결과 부도유예협약의 개정 문제, 전경연과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의 근기법 흔들기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합원들의 분노와 연대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대지국면을 현장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총파업 이후 고용문제로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동운동의 조직적, 정치적 재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각급 조직은 대대적인 선전과 홍보, 교육 및 현장토론을 통해 조합원의 정치적식과 기운을 높이는데 모든 힘을 이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